

건축과 법의 조화로 좋은 도시를 만들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도시를 만드는 법

김지엽 지음

범박하게 말한다면 현대 도시는 거대한 욕망의 산물이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욕망을 추구한다. 이 욕망은 경쟁과 맞물려 있는데,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흔히 말하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 다시 말해 경쟁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적인 법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서로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논의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법은 필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시계획과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를 담은 '도시를 만드는 법'이 나왔다. 저자는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인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다. 이번 책은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페이스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 학위 등을 받고 귀국



해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축적해온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후 김 교수는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북촌도시재생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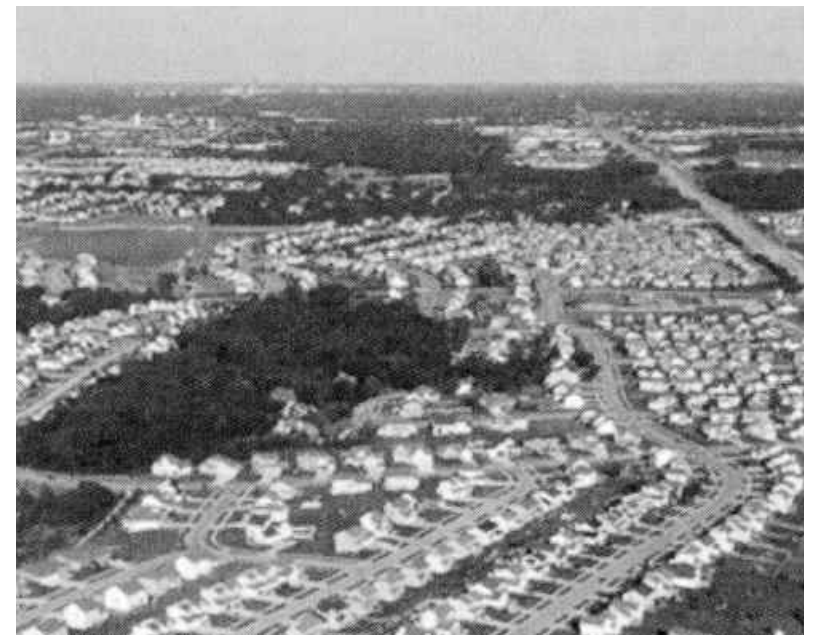
"건축이나 도시 관련 분야의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대로 법학 전공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전문가들은 물론 관련 법규를 다루는 전문가,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용이한 책이다.

사실 도시 하면 설계와 디자인이 좋으면 절로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자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제어하고 있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사유 재



1960년대 공익사업으로 수용을 통해 개발된 워커히 호텔.



미국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주거 이의 용도가 철저히 제한된다.

산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관한 법에는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개의 법률 이전에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민법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행정법의 행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도시계획·설계 기법과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과 계획제한을 다룬 1장은 헌법의 재산과 보호 및 제한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재산권

관련된 2장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이, 3장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만나는 쟁점이 주제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과 5장(기부채납과 공공 기여)은 각각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법상 주요 원칙 등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 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다룬다.

6장은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을 다루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다룬 7장은 도시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등을 다룬다.

한편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중앙대 교수)은 "책 구성 또한 단순히 개별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것이 도시계획의 현장에 적용될 때의 의미와 효과까지, 그간 멀었던 법과 도시계획 간의 거리를 단숨에 좁여주었다"고 평한다.

〈성균관대출판부·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

이충렬 지음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 "영웅적 신앙의 모범적 증인이며 한국 백성들이 박해와 고통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에 돌봄과 위로의 빛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국인 최초 카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는 1846년 25세 나이로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198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가톨릭 '성인'(聖人)으로 추대됐다. 또한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인류 평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건 신부의 삶과 그가 걸었던 신앙의 길을 담아낸 책이 출간됐다. 전기문학의 지평을 연 전기 작가로 꼽히는 이충렬 작가가 저자다. 이 작가는 지금까지 '간송 전형필', '해곡 최순우, 한국미의 순례자' 등을 펴냈으며 전기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계 대표 인물의 생애를 발굴, 복원한 공로로 제3회 해곡최순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기는 상해에서 작은 뱃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태풍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 김대건의 모습은 이후 펼쳐질 고통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기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공개 처형했던 19세기 조선의 정세는 물론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입국로를 개척하는 과정 등을 짚조각해 담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조선 천주교회의 고난과 희망을 담아낸 청년 김대건 신부의 드라마 같은 연대기를 촘촘하게 풀어냈다.

한편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는 추천사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보여준 깊은 신앙심과 큰 용기는 오늘날을 사는 신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부디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실 때 '조선 청년 김대건'의 열정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사·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빨강, 하양 그리고 완전한 하나

라지니 라로카 지음, 김남령 옮김

운문 소설이라고 있다. 각각의 시가 모여 하나의 소설 형태를 이루는 작품을 말한다. 올해 뉴베리 아너상을 받은 '빨강, 하양 그리고 완전한 하나'는 118편의 시가 수록돼 있고 시는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소설로 수렴된다.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 켄터키주에서 자랐으며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라지니 라로카가 저자다.

뉴베리상은 어린이 노벨상으로 불린다. 지난 1922년 제정돼 매년 대상 한 작품과 우수상에 해당하는 아너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뉴베리 아너상에 선정된 '빨강, 하양 그리고 완전한 하나'는 운문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118편의 시는 부모의 기대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여자 아이를 다룬다.

주인공 레하는 중학교 2학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멋진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엄마는 레하가 자신이 만든 옷을 입기를 원하며 레하가 댄스파티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엄마가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된 것.

레하는 엄마가 아프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된다.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세계들이 모두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책은 운문소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독자들에 주안공의 세세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운문 문장의 빼어난 비유는 독자들에게 환상적인 상상을 전달한다.

운문소설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미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의 형태다. 시의 장점과 산문의 특징이 융합돼 있어 감정을 이해하고 이야기의 구성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다.



〈박은미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독교 콘서트

만프레트 뤼츠 지음, 오공훈 옮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고, 그를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종교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를 따르는 신자 수는 전세계 약 24억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기독교 자체를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의학박사이자 신학 학위를 보유한 성 알렉시오 병원 수석의 사인 독일 출신의 만프레트 뤼츠는 강연자와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이 높다. 그는 신작 '기독교 콘서트'를 통해 고백이나 잡회 특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종교인 기독교의 흥미진진한 실제 역사를 다뤘다.

기독교는 구원의 역사였을까? 어둠의 역사였을까? 인류가 인권을 발전시킬 때, 기독교는 제동을 걸었을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유대교의 작은 종파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는지 어떻게 로마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설명한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마녀사냥,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등 기독교 역사에 대한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통찰했다. 또 독신, 교황의 무류성, 여성과 교회, 성 윤리 등 고전적인 주제에 대한 최신 학문적 성과도 함께 담아냈다. 유럽의 지적 뿌리와 인류의 문명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꼭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제공한다.

만프레트 뤼츠는 저자의 말을 통해 "나는 독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이토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견도 없는 무신론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기독교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에 반하는, 믿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



〈더봄·2만2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